

논란 속에 회칙 개정 투표 연기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 21일 응봉과학대학(응과대) 단대운영위원회(단운위)가 ‘학대운영위원회(학운위) 총학생회칙 개정’을 두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게시했으나, 이후 총학생투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응과대 단운위는 입장문에서 “학운위가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학운위 소집 공고일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진행 ▲학생총투표 공고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거론하며 “총학생회는 이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학운위 소집을 재공고하여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재공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려는 주체가 총학생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으로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학생들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총학생회칙 개정 전면 재진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우주과학 2017) 응과대 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잘못된 선례가 생긴다는 생각에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9월 21일 국제캠 총학생회는 회칙 개정 사전 절차로 '밝은사회장학금' 책정안을 검토했다. (사진=국제캠 총학생회 제공)

고 입장문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지난 23일 국제캠퍼스 중운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취지와 개정 절차에 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총학생회칙 내 ‘밝은사회장학금’ 관련 조항 추가 안건은 지난해 논란이 된 총학 측 장학금 수령 과정을 투명하게 해 장학금 대리수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중운위는 졸속 개정 건의에 대해 “학운위 일정 및 회칙개정안 공고 시점 일정에 대해 중앙운영위원들의 재확인과 전원동의가 있었다”며 “학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최종 공고 시점

과 긴급 학운위 공고를 하루 늦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지영 응과대 학생회장은 “공고 시점 및 의결 미준수는 저를 포함한 중운위원들이 학생회칙에 대해서 깊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라며 “코로나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운위를 맡고 있는 이소영(체육학 2016) 부총학생회장은 “학운위를 서면으로 진행하며 이전 이전과 다른 의결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사전에 전달했고, 중운위 및 단운위의 피드백을 받은 5차 학운위가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단위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전

했다.

또한 “올해는 국가 재난 상황을 맞아 총학생회칙을 모두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에 대학본부 및 학생회는 수많은 예외조항을 통해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학생총투표를 연기했다. 선관위는 “총투표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문으로 인해 학생자치기구가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는 취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11월 선거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되도록 12월에 학생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어렵다면 인수인계를 통해 3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캠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학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은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학생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한 코로 나19 종합상황실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고 역학조사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학교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밀접접촉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이며, 역학조사관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은 “해당 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며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후 학생이 다녀간 곳에 대한 교내 방역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니 현재 방역 상태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500명을 훌쩍 넘는 등 확산 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지난 24일부터 출입문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대면 원칙이었던 기말고사 시험 방식도 비대면으로 변경된 상태다.

'전환의 시대'

(敎學相長)

지구시민과 함께 하는 교학상장

둠스데이클락 (The Doomsday Clock)

둠스데이클락(지구종말시계)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위협요인을 분석해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 세계원자과학자협회(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가 매년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발표

2020년 23시 58분 20초

2019년 '2분 전'에서 20초 당겨져, 1947년 시작 후 '종말'에 최근접 인류는 여전히 핵전쟁과 기후위기와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 핵 무기 경쟁 재개와 핵 확산을 유발하는 환경 조성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 인식은 증가했지만, 각국 정부의 조치 부족

"문화세계의 창조." 지난 70여 년 이어온 경희의 가치입니다. 인류 문명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학술과 배움의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삶의 기반인 환경과 생태, 기후와 자원, 인류 보편이 크게 흔들리고, 생존과 평화·번영의 지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문화에서 종합으로' 경희는 교학상장의 새 지평과 함께 내일을 상상하고, 오늘을 혁신하는 지구시민의 길을 열어갑니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